

# “사랑은 맞지만 결혼은 아직”

## 박지성, 김민지 아나운서와 열애 인정



박지성

한국 최고의 축구스타 박지성(32·퀸스파크 레이저스)이 SBS 김민지(28) 아나운서와의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박지성은 20일 수원월드컵 컨벤션웨딩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열애설과 관련해 “김민지 아나운서와 오래 사귄 것은 아니었다”며 “영국에서 귀국한 뒤 5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를 처음 만난 것은 2011년이었으며 부친인 박성중 씨가 배성재 SBS 아

나운서의 추천을 받아 만남을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박지성은 “처음에는 오빠와 동생처럼 지냈는데 연락을 자주 하다 보니 나를 이해해주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김민지 아나운서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김민지 아나운서는 내 눈에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강조했다. 박지성은 기자회견 말미에 취재진의 요청에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리며 김 아나운서에게 “사

랑한다”는 말까지 전했다. 박지성은 김 아나운서와 진지한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결혼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결혼설과 관련, “유럽축구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라서 내가 은퇴를 하지 않는 한 7월에 결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성과 김민지의 열애는 최근 한 매체가 이들이 한강 둔치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보도하면서 대중의 큰 관심을 얻었다. 박지성은 “이런 소문이 김민지에게 추악

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 소식은 듣지 않고 공식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며 결혼 후에 가능한 한 아이를 많이 낳도록 노력하겠다고 활짝 웃었다. 축구 팬들에게 앞으로 김 아나운서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도록 응원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지성은 2002년 한국·일본, 2006년 독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국가대표 미드필더로 맹활약한 한국 축구의 아이콘이다. 그는 2011~2012시즌까지 잉글랜드 프

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7시즌 동안 205경기를 소화한 ‘한국인 1호 프리미어리거’이며 지난 시즌 퀸스파크 레이저스에서 뛰다가 현재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추진하고 있다. 김민지 아나운서는 선화고, 이화여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2010년 SBS 17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현재 SBS 축구 전문 프로그램 ‘풋볼매거진 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생방송 투데이’의 진행을 맡아 대중에게 친숙한 방송인이다. 김 아나운서의 아버지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덕진 변호사이고 어머니는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오명희 교수다. /연합뉴스 김민지



김민지

### 박창순 소방항공대장 광주시에 쌀 100포대



광주광역시 박창순(57·사진 오른쪽에서 3번째) 소방항공대장이 지난 19일 광주시에 ‘사랑의 쌀’ 100포대를 기증했다. 박창순 대장은 지난 7월 소방공무원 최초로 사회복지단체 백제 라이온스클럽 제3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 대장은 이날 오후 오후 한국 행정부시장에게 불우 이웃을 위한 쌀을 기증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1981년 육군 헬기 조종사로 시작해 1992년 전역 후 경찰, 소방항공대 조종사로 32년간 근무한 박 대장은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에 앞장서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전남대 이근배교수 EBS ‘명의’ 출연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근배 교수가 국내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EBS ‘명의’에 출연한다. 이 교수는 최근 EBS ‘명의’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질환, 족부족 질환’편 ‘명의로 선택’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환자치료와 수술 장면 등을 촬영했다. 이 교수 편은 오는 7월12일 오후 9시 5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족부족관절 분야 권위자인 이 교수는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해 훨씬 늦게 출발한 국내 족부족관절 분야에서 최근 5년간 국제 의학술지(SCD)에 5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제학술대회에서 활발한 논문발표 등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최희정기자 chae@kwangju.co.kr



### 중앙박물관, 글로벌 역사외교대사 발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제7기 글로벌 역사외교대사 발대식’이 오는 7월25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발대식은 한국홍보 동영상 상영 및 박기태 반크단장, 현직 외교대사의 특강 등 역사와 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주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협력하는 이번 행사는 6월17일부터 7월16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200여 명을 선발해 3주간 활동할 예정이다. 신청은 글로벌 역사외교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전달 북구 FM 제작 최인주·정환형 PD

# “소수의 큰 목소리 들어보실래요”

장밋바가 보슬보슬 내리는 지난 18일 오후, 북구청 별관 3층 ‘북구FM’ 방송 스튜디오 안으로 김수연(14)양이 엄마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들어선다. 방송국을 찾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엄마의 도움이 없으면 이곳에 올 수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이다. 한걸음 내딛을 때마다 조심스럽지만 스튜디오 녹음이 시작되면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로워진다. 학교에서 친구와 있었던 이야기부터 평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자유의 노래를 펼친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녀가 라디오를 통해 세상과 소통을 시작한 것은 ‘시민참여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북구FM’을 만나면서부터다.



북구FM 스튜디오에서 정환형 제작팀장(왼쪽)과 최인주 PD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북구FM 최인주(25)PD는 “수연이처럼 우리 사회 소수인 사람들, 기존 큰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평범한 이들의 소소한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방송을 만들고 싶다”며 “엄격한 틀에 맞춘 방송이 아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공동체 라디오”라고 말했다. 2004년 당시 정보통신부가 지역 사회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를 만들었다. 이때 ‘마포FM’ 등 전국에서 총 8개의 시범사업자가 선정됐고 이후 ‘나주FM’이 폐국하면서 현재 7개 공동체 라디오가 서비스 중이다. 북구FM은 지난 2005년 12월1일 개국해 FM 88.9MHz에서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이천적으로 5km 이내에서 들을 수 있지만 수신기기와 전파 상황에 따라 청취환경은 크게 달라진다. 최인주 PD는 2006년 대학 재학 중 ‘청춘예찬’이라는 프로그램 DJ를 맡으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방송연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최 PD는 볼특정 다수를 향해 자

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 라디오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이후 DJ로 연출담당으로 북구FM을 이끌고 있다. 그와 함께 북구FM을 이끄는 또 다른 주역, 바로 정환형(31)제작팀장이다. 정환형 팀장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북구FM에서 일을 시작해 방송제작부주 홀페이디 관리, 홍보까지 1인3역을 소화하고 있다. 이들이 만드는 방송은 다양하다. ‘디딤소리’는 2011년 시작해 매주 월·화·수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정환형 팀장은 “디딤소리는 장애인이 직접 DJ로 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함께 고민하는 방송”이라며 “장애인이 방송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방송”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은 2006년 시작한 ‘청춘예찬’이다. 대학생이 광주 맛집 소개부터 연애이야기, 취업에 이르기까지 오늘을 살고 있는 청춘의 회로에라

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수많은 청취자의 사랑을 받았지만 현재는 방송을 맡아 줄 인원을 구하지 못해 정중단원 상태다. 북구청·전남대학교·북구주민자치위원회·북구자원봉사센터·북구장애인복지회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수 인력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 중이라 어려움도 많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방송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는 것도 부족한 인력과 예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방송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북구FM을 알리고, 스마트폰을 통한 청취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정환형 제작팀장은 “시민을 방송국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를 들고 직접 수신 속으로 찾아가는 방송을 만들고 싶다”며 “청취자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 북구FM이 공동체 소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불법 광고물엔 ‘저승사자’ 뜬다

#### 광주시청 윤재권씨 작년 92만건 회수



광주시 윤재권(56·사진) 간추주책과 불법광고물정비 담당은 불법광고물 업자들 사이에 ‘저승사자’로 통한다. 그가 이끌고 있는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6개반 18명)’이 출동하면 불법 현수막에서부터 풍선 광고물 등 광주도심을 어지럽히는 불법광고물이 깨끗하게 사라지기 때문이다. 윤 주일이 이끈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이 지난해에 제거·회수한 불법광고물은 총 92만건으로, 2억8000여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올해에도 4월 현재 29만여건의 불법 광고물을 회수한 상태다. 광주시는 세계한상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 개최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과 전경중이다. 그 선봉에는 윤 주일이 이끈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이 있다. 이들은 평일과 휴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광고물 수거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강운태 광주시장의 강력한 지시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서 1차로 음란성 전단지 속칭 ‘불법딱지’를 척결했다. 도시 곳곳에 내걸린 불법 광고 현수막과 풍선형 광고물 등은 2차 척결 대상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어린이희망페스티벌’ 내일 시청 야외음악당

삼성희망네트워크광주(이사장 박남기)가 주최하는 ‘어린이희망페스티벌’이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어린이페스티벌로 ‘빨주노초파남보 우리들의 일곱빛깔 이야기’란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어린이 페스티벌은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타악 퍼포먼스, 댄스공연, 마술쇼, 먹거리체험, 미디어체험 등의 행사가 펼쳐질 계획이다. 운동장에서 직접 야구를 하는 것보다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단체대화를 즐기거나 SNS를 선호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진정한 놀이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페스티벌을 주최한 삼성희망네트워크광주(이사장 박남기)는 지역내 아동들에게 인문학 교실 운영, 문화예술사관,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양세열기자 hot@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 학측

▲김선복씨 장남 문국관군 이춘상(한국과학기술원 부장)·하희욱씨 장녀 선영양=22일(토) 오후 1시 광주 광산구 분향교회.

### 동창동문회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제8회 동창회(회장 정한영) 정기총회=21일(금) 오전 11시 30분 광주 동구 히딩크호텔 6층 대연회장 062-222-5908. ▲조선대학교 조주회(회장 민경재) 월례회=25일(화) 오후 6시 30분 오륙도 식당 062-227-9850.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인) 제3회 총동문회 장례 유은 동문 한마음 골프대회=25일(화) 오전 11시 무안컨트리클럽 062-361-2680.

### 종친회

▲전주강씨 광주전남 종회(회장 강원구) 임원회의 개최=22일(토) 오전 11시 종회 사무실 3층 062-228-3368. ▲(사)전주이씨 대동중앙회 광주·전남 여성이화회 월례회의=22일(토) 오전 11시 도지연 회의실 011-605-2059.

### 향우회

▲재광나주 향우회 제22차 정기총회(회장 나도팔) 겸 나주인 모두의 만남의 장=29일(토) 오후 4시 광주 알렌시아웨딩홀 062-227-8880.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자 062-1366. ▲중고컴퓨터 기증하실 분=광주·전남도에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에게 중고 PC를 기증하실 개인, 단체, 기관 환영. (사)장애인복지

실천 광주·전남운동본부 062-511-0030.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 인권지원센터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습관성도박(경마, 주사,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오락 등)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프르네 학습증진센터실 저소득층자녀 무료상담=학교부적응, 성적부진, 성격적화, 교우관계, 정서장애, 게임중독. 010-6392-7137.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원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야간보호.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 등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 모집

▲특정동지회 재난구조협회 광주광역시지부 동참자수지 수증정화할

동 참가자모집=22일(토) 오전 10시 30분 특전사 전역자 대상 특전예비군(동원예비군 제외) 062-225-6500. 010-5143-1214. ▲바이옴(유선균·효소) 두암검출=장, 소화기 질환, 피곤, 변비, 야기들 이위식, 건강, 아토피, 경년기, 관절, 대사성질환,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회원 수시모집 062-266-5800, 010-6614-232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둠 수업 :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동구정신보건센터 주간지서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정방문)서비스 제공 062-233-0468. ▲(사)녹색전국연합 주간지서 환경정화사업에 동참하실 참신한 사·

군지회상 모집 061-272-2207. ▲탁주·약주·증류주 등 전통주 제조법 수강생=조선대 평생교육원(월요일 오후 7~9시), 호남대 평생교육원(수요일 오전 10~12시, 오후 7~9시). 조선대 062-230-7700), 호남대 062-370-8211.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대상자=미술치료·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길라잡이 프로그램=(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고급반 한국어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증·노환), 취사, 청소 가지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謹 삼가 故 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b>故 朴 泰 德 兄(남/62세)</b> 子: 박남주, 남준 女: 현정 未亡人: 김경순 •호실: 201호 •장지: 고흥푸른면선영	<b>故 張 亨 浩 兄(남/59세)</b> 子: 장승욱, 승권 女: 정수영/강윤화 未亡人: 이윤남 •호실: 301호 •장지: 담양남면선영
<b>故 李 亨 德 兄(여/86세)</b> 子/子婦: 이병택/정영금 女/婿: 이연심/김철모, 은자/백인기, 민자/김영철	<b>故 任 泰 潤 兄(남/72세)</b> 子/子婦: 임승재/이숙연, 승범 孫: 임민태, 승중 •호실: 401호 •장지: 무안해계선영

孝 金 福 齋 禮 食 堂 http://www.mykumho.com 弔의 (062)227-4000